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6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35. 속죄하신 구세주를 |
| ♠ 공동기도 | 다함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우수(雨水)를 앞둔 들녘에서 봄기운을 느끼는 것은 긴 겨울에 지친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까? 낮이면 이영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때 미쳐 지붕을 이었던 선인들처럼, 우리도 말쑥과 은혜의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느라 충혈된 눈을 거두고, 우리 삶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온유한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못한 자아의 옷을 벗고 또 벗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참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절망의 심연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 놓을 줄 아는 마음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무엇을 가져오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고후4:6 |
| ♠ 교 독 문 | 13. 시편 34 편 |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 대표기도 | I. 박효선 권사 II. 윤정덕 장로 |
| 사도신경 | 다함께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
| 성경봉독 | I. 고전6:12-20 |
| | II. 사57:14-21 |
| 찬 양 | 김 극 집사 |
| 말 씬 | I. 성전 된 몸 |
| | II. 높이 그리고 함께 |
| | 김재흥 목사 |
| | 김기석 목사 |

| | |
|--------------------------------------|-----|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74. 너 주의 사람아 | 다함께 |
| 헌금봉헌 | 다함께 |
|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낮은 곳
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
려는 주님의 꿈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때로는 영혼을 휘몰아치는 세상의 바람 앞
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에스겔 통독 강좌(17) | 로마서 강해(68) |
| 기도: 김시영 권사/이동천 집사(22일) | 기도 : 이소순 집사 |

| | | | |
|-------------------------|------------------|------------------|---------------|
| 다음 주 예 배 위 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 엄혜영 선생 조병무 장로 | 인도자 박홍재 권사 |

| | | | | | | | |
|-----------|------|-----|-----|-----|-----|-----|-----|
| 2월 | 영접위원 | 한완식 | 김정길 | 백승민 | 유영남 | 최영혜 | 권미정 |
| | 헌금위원 | 김철수 | 박창운 | 김용진 | 임창선 | 곽해자 | 김성자 |

하느님의 눈물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돌이 토끼는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토끼는 산토끼인 셈이죠. 어느 날 돌이 토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취덩굴이랑 과남풀이랑 뜯어먹으면 맛있지만 참말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먹히는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돌이 산토끼는 중얼거리면서 하얀 이슬이 깔린 산등성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난 먹어야 사는 걸. 이렇게 배가 고프는 걸.)

돌이 토끼는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돌레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쪼꼬만 아기 소나무 곁에 풀무꽃풀이 이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돌이 토끼는 풀무꽃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무꽃풀아, 널 먹어도 되니?”

풀무꽃풀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

“널 먹어도 되는가 물어 봤어. 어떡하겠니?”

풀무꽃풀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바들바들 떨면서 풀무꽃풀이 되물었습니다.

“.....”

이번에는 돌이 토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정말이구나. 내가 잘못했어. 풀무꽃풀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려니까 안 되어서 물어 본 거야.”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풀무꽃풀이 콧콧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힌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모두가 운명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돌이 토끼는 눈을 깜빡거리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짱충짱충 뛰어서 풀밭 사이로 갔습니다. 땡땡이 덩굴이 얽혀 있었습니다. 잠깐 쳐다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땡땡이도 먹을까 물으면 역시 무서워할 거야.)

돌이 토끼는 깔때덩굴 잎사귀 곁에 가서도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바디취 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고수대 나물도, 수리취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해님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님 아저씨, 어떡해요? 나 아직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왜 아무 것도 못 먹었니?”

해님이 눈이 둥그래져서 물었습니다.

돌이 토끼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얘기를 죄다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넌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찌지.”

해님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괴롭지만 앓다면 죽어도 좋아요.”

돌이 토끼는 기어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해님도 덩달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님이 반짝거리며 나왔습니다. 돌이 토끼는 자꾸자꾸 울다가 잠시 눈을 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이 토끼는 말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무얼 먹고 사세요?”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리수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느님, 저도 하느님처럼 보리수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먹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 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느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기를 써 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돌이 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느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권정생)

나는 자유롭다

나의 하나님은 내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과 태양과 내가 매순간 새롭다는 것과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행한 선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는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비열함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온갖 미움, 온갖 배신, 온갖 사악 뒤에 있는 사랑을 거스르는 죄악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를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자유롭다.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창조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나는 자유롭다.

권위가 권력과 혼동되지 않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행사될 때 나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가운데 내가 누리는 삶의 부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

이웃의 눈에서 창조주께서 보내시는 첫 시선의 신선함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

(후안 아리아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 | | | | |
| 원로목사 : 박정오 | 소속목사 : 한인철 | 전도사 : 박옥식 | | | | | |
| 원로장로 : 방현복 | 김춘려 | 전영규 | 김성한 | | | | |
| 장 로 : 윤정덕 | 강인식 | 김철수 | 조병무 | 한완식 | 구성실 | 이용한 | 윤석철 |
| 성가대장 : 이용한 | 지휘 : 윤주원 | 반주 : 최윤선 | 안홍숙 | 한선희 | 김수진 | | |
| 관 리 인 : 노용래 | 윤전기사 : 오진훈 | 도서관 | 관 장 : 이순정 | | | |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구명자 안정숙 김근종 정옥영 김 극 윤수진 김윤수
박옥경 박순희 이유선 방극숙 박정숙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정두리 이정은 고숙이 김미순 이경남 김정섭 조동길 배부례 곽권희
정원석 김현영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임춘원 김순복 송남철 신동례 박두석 김재환 박병규
고숙이 김홍기 최다미 최보미 청년부 무명1
무명2

생일감사헌금:

한인철 조병무 송양진 백묘현 이광용 형인순 김시영 이운화 백혜성
조관행 홍선희 김혜선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노 용 래 | 이 명 옥 |
| 베들레헴 | 윤 정 덕 | 정 경 례 | 김 미 순 | 윤 정 덕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이 재 문 | 곽 권 희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문 영 혜 | 곽 혜 자 |
| 갈 린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박 애 순 | 안 정 숙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홍 재 | 백 묘 현 | 김 경 수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이 인 섭 | 송 의 섭 |
| 엠 마 오 | 최 속 화 | 권 미 정 | 이 기 분 | 최 희 경 |
| 에 베 소 | 이 순 정 | 한 선 희 | 이 순 정 | 오 복 순 |
| 빌 립 보 | 최 종 원 | 이 형 숙 | 이 정 은 | 이 명 희 |
| 가 버 나 움 | 구 성 실 | 안 흥 숙 | 구 성 실 | 이 명 옥 |
| 나 사 렛 | 백 혜 숙 | 정 옥 영 | 김 시 영 | 김 희 우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송 양 진 | 유 경 순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이 증 자 | 윤 정 화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조 향 미 | 최 영 혜 |
| 두 란 노 | 안 종 일 | 정 현 주 | | |

